

# 올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추진

### 전북도, 연구·비연구개발 지원 구분... 비연구개발에선 기존 마케팅 등과 더불어 기술지원도 신설

전북도는 '2018년 수요맞춤형 드론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수요 맞춤형 드론 산업육성' 시범사업으로 전북 드론 관련 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기업의 연구개발 추진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매출 확대 및 고용 증대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 사업은 연구개발(R&D), 비연구개발 지원으로 구분되며, 비연구개발 지원에서는 기존 마케팅 및 사업화와 더불어 기술지원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산업용 드론의 분야별 특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및 기술지원으로 도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과학기술진흥이나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전북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해 16일까지 전북도청 미래산업과에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수요 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사업으로 분야별 특화기술 개발과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과학기술진흥이나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전북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해 16일까지 전북도청 미래산업과에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수요 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사업으로 분야별 특화기술 개발과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과학기술진흥이나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전북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해 16일까지 전북도청 미래산업과에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수요 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사업으로 분야별 특화기술 개발과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송지사, 박세우 감독 김아랑 선수 격려

송지사 전북도지사는 5일,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김아랑 선수와 전북도청 빙상팀 감독이자 국가대표 감독인 박세우 감독을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

송지사는 "김아랑 선수가 1,500m 결승에서 4위의 아쉬움을 딛고 일궈낸 3,000m 계주의 금메달이라 더욱 값지다"며 축하했다.

또한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여수선한 빙상계의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세우 국가대표 감독에게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열정으로 대표팀의 분위기를 정비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쇼트트랙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어 고맙고, 박세우 감독의 활약으로 전북 빙상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치하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책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기관장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후속조치,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대책 수립 등이 논의됐다.

##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구 광역의원 690명·기초의원 2927명 조정

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일정표가 미리 짜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쟁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개정안을 석 달 가까이 늦장 처리한 데 따른 비판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34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본회의의 산회 후인 3월 1일 새벽이 돼서야 이를 처리하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정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자치구 및 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린 2927명으로 조정했다. /뉴시스

##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자 개정안 시행 10일 이내 재선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시행일 후 12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고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 /뉴시스

## 중양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시행일 후 12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고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 /뉴시스

## “전주시, 비정상적 관행 혁신 필요”

### 서난이 시의원, 5분발언서... 앞서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사진)은 5일 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비정상적 관행의 혁신 필요'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 채 뽑아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서 의원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 채 뽑아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서 의원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 채 뽑아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도내 농식품 일본 수출 확대

### 전북도,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동경 식품박람회' 참가

전북도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일본컨벤션센터(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리는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에 총 10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북 홍보관에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의 대세인 생들기름을 생산 수출하는 전주 한국오가닉과 고려자연식품(유자차), 농부의꿈(당조고추), 황수연전통식품(전통장류) 총 4개 업체(15품목)가 참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함께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에는 꼬숩식(생들기름), 초록아리울(참기름), 디지털인농부(잡곡세트), 미와미(유자차), 푸드웨어(감자물만두) 총 6개 업체(20품목)가 참가, 전체 10개(35품목)의 전북 농식품 업체가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다.

일본 동경식품박람회는 2017년에 77개국 3,282업체가 참가하고 8만2,434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농·식품 분야 일

본 최대의 국제식품박람회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 영향이 2016년 엔화 환율의 일정 부분 회복에 힘입어 해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참가는 일본 바이어는 물론 현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서 전라북도 농·식품을 홍보하고 일본 내수시장을 공략할 좋은 기회이다.

전북도내 업체들은 박람회에 참가한 세계 유수의 업체는 물론 내방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여 전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일본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참가는 기존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현지 소비자 중심의 해외 일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